

바람에 나부끼는
오래된 기원

한 올 한 올 우주로 날아가

우주를 의미하는 오색 깃발에 새겨진 경전
바람타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해지길 염원

흰 눈이 사는 곳, 길이 8만 미터의 산맥에
높이 8천 미터 이상의 거봉 14개를 거느린
히말라야는
지구의 지붕이자 등뼈이고 머리이자 심장입니다.
태고로부터 히말라야는 인류에게
무설설의 설법으로 삶의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 인류에게 히말라야는
정복의 대상으로 도전의 한계를 실험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그 욕망은 그침이 없습니다.

히말라야의 최고봉은 세계의 최고봉입니다.
초모롱마,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의 8848미터.
그곳으로 가는 길, 이름을 얻지 못한 산과 마을들
빼곡한 다랑논으로 이루어진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남체바자르로 들어가 쿨부히말라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의 초입(初入), 지리에서 출발한 길은
시발라야, 반달, 부싱가, 파쁘레, 불블레를 거쳐
피케이봉(4068m)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길을 걷는 것,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길에서 무수한 기원(祈願)을 만납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오래된 기원을 만나게 됩니다.
산굽이를 돌아갈 때마다 펼쳐지는 풍다,
집집마다 솟대를 세우고 걸어둔 타르초,
마을 어귀와 산등성이를 지키는 마니탑,
곰빠(사원)의 지붕 위, 초르텐(탑)의 꼭대기에는
어김없이 오색의 깃발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파랑, 구름을 상징하는 하양
태양인 빨강과 산아인 초록, 대지의 노랑
다섯 가지 색깔은 그 자체로 우주입니다.
깃발에 새겨진 옴 마니 반 메 흠, 육자진언과
하늘을 나는 말 그림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바람에 한번 나부길 때마다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이라 믿고
진리의 고갱이가 한 올 한 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여, 히말라야에서 부는 바람에는
우주 법계를 쓰다듬는 진리가 배어 있으니
바람에 온 몸을 맡기고 걷다보면
투명 해 질대로 투명해진 나를 만나게 됩니다.

히말라야에서 만나는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부처의 손길이고 보살의 눈길입니다.
오래전부터 기원 해 온 인류의 염원,
나의 평화와 너의 자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는 오늘도 바람에 펼쳐집니다.

히말라야에서 당신에게로 나부깁니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해발 2705미터의 대우랄리(언덕위의 전망대라는 뜻)에 세워진 타르초 솟대위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바람에 펼쳐지는 풍다에서 오늘 밤에도 울음이 부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질 것이다. 히말라야의 염원은 인류의 염원이다.



하늘과 구름, 태양, 산천초목과 대지를 뜻하는 다섯 색의 천에 경전을 새겨 바람에 날리는 마음은 산과 강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 불교도를 염원하는 순결 이전의 순결이다.



부싱가 마을 중간의 곰빠 마당에 세워진 석탑. 2000년 전에 세워진 이 석탑은 티벳 불교의 전통을 담고 있다. 아래쪽 사각형은 대지의 상징, 원형은 물을 뜻하고 맨 위의 원추형은 노력의 불기운이다. 전통 석탑은 공기를 상징하는 초승달과 우주공간을 뜻하는 '공의 꼭지'를 포함한다. 지수 화중공의 우주적 개념이 석탑에 담기는 것이다.



히말라야의 마을 어귀나 언덕에는 어김없이 마니탑이 있다. 길게 쌓은 석단은 판석에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을 새겨 장식한다. 불보살의 가피력에 의지하려는 산 사람들의 소박한 기원이다.



대우랄리의 마니탑 옆, 풍다가 걸린 나무에 개인의 염원을 담은 카타가 수없이 걸려 있다.

한 권이면 법화경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꼬덕이게 한다.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일야 역편 / 신국판 / 양장제본 / 752쪽 / 28,000원

- “수녀 출신 일야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펴내” (한국일보)
-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야스님” (중앙일보)
-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야스님’” (한겨레)
-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 “수녀 그만 두고 출가, 멋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

민족사

일체중생 행복 되소서!



피케이 제1봉(4068m)에서는 1미터의 히말라야 산맥이 한 눈에 조망된다. 그 중간에 에베레스트가 있다. 이 봉우리에는 사시사철 강풍이 불고 사시사철 룡다가 펄럭인다. 펄럭이는 룡다 아래 서면 설산의 신령한 기운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목의 등걸에 걸여 둔 카타들이 타르초의 역할을 한다. 그 옆을 지날 땐 저절로 허리를 숙여 합장을 하게 된다.



카트만두 인근 돌리켈에 위치한 나모뵤다는 네팔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중의 하나다. '설산동자'의 전설이 전하는 이곳에는 유난히 많은 룡다가 펄럭인다.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는 오래된 염원이 깃든 석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손을 모으면 빌고 싶은 것이 많다. 중생이기 때문일 것이다.



카트만두 인근의 성지 돌리켈 나모뵤다에 세워진 승탑을 장엄하는 룡다들. 스승의 가르침이 이 룡다를 통해 세상으로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파쁘레 마을의 축제, 행복한 365일

“한국 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갈 등가 지역 '피케이 파쁘레 스쿨' 첫 학용품 전달식, 마을 축제로 승화



파쁘레 마을에 처음 생긴 학교에 한국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학용품과 교보재가 전달되는 날, 이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다.

해발 2600미터에서 밀과 감자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파쁘레(메밀밭이라는 뜻) 마을은 콤부 히말라야를 뒤로 한 오갈 등가의 경계선에 속한다. 셀파족 47가구로 이루어진 파쁘레 6구역이다.

4월 17일 오전 10시. 마을 중간에 위치한 작은 학교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작년 가을 '피케이 파쁘레 스쿨(Pkey Phapre School)'을 개교한 이래 첫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이 학교를 개교한 것은 네팔 카트만두의 세종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원장 영봉, 이하 세종교육원)과 한국의 후원단체 '히말라야의 꿈'이다. 두 단체는 3세에서 7세까지의 미취학아동 75명을 돌보는 이 학교에 학용품과 교보재를 제공하고 2명의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날 행사는 세종교육원과 히말라야의 꿈이 준비한 학용품과 교보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

손과 눈동자가 새까만 어린이들이 영봉 스님과 오진 스님(울산 월봉사주지) 등 한국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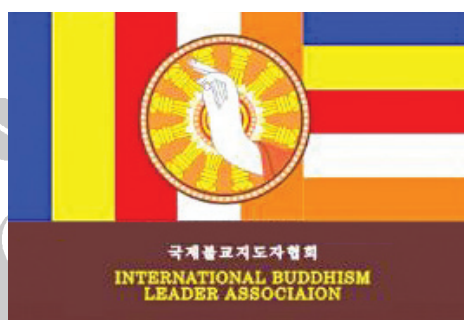
님'들에게 카타를 걸어주면서 시작된 행사는 카마(KaMa) 셀파와 니미(NgiMee) 셀파 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 학용품과 교보재, 운동기구, 간식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전달식에 이어 주민들이 준비한 셀파댄스 및 노래 공연과 학생들의 장기자랑은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파쁘레 마을의 원로인 나왕세리(70세)씨는 "300년 전 파쁘레 마을이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도 뜨겁다"며 "이런 오지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의 후원회원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원과 히말라야의 꿈이 주관하는 행선트레킹에 참가한 불자들이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날 행사는 파쁘레 마을의 새로운 축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두 단체는 매년 4월 정기 트레킹을 개최하며 이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파쁘레 마을의 아낙과 청년들이 한국불자들의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전통적인 셀파댄스를 추고 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